

05 2027학년도 수시 원서

수시에 다 떨어졌다면

정시로 가는 길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 먼저 사실부터	2
02 무엇이 다른가	3
03 무엇이 남았나	4
04 그래서 무엇을	5
05 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수시가 그렇게 생긴 까닭 — 여섯 장은 여섯 번의 낮은 확률을 겪는 일입니다
- ◆ 정시는 다른 시험입니다 — 내신을 대개 안 보고, 결과를 훨씬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
- ◆ 남은 길 넷 — 정시 세 장 · 2월 추가모집 · 전문대 · 재수
- ◆ 재수를 정하기 전에 세어 보실 것 · 지금 하실 차례 넷과 점검표

01 · 먼저 사실부터

흔한 일입니다

「여섯 장이 다 떨어졌습니다.」

12월에 가장 무거운 전화입니다.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. **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.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** 남은 것은 정시이고, 정시는 수시와 완전히 다른 셈으로 움직입니다.

왜 흔한지부터 보시겠습니다. 수시의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.

수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

수능최저를 거는 자리	46%
논술 경쟁률 중앙값	36:1
학종 경쟁률 중앙값	12.4:1
교과 경쟁률 중앙값	9:1

여섯 장을 쓴다는 것은 여섯 번의 낮은 확률을 겪는 일입니다. 다 떨어지는 것은 실패라기보다 자주 일어나는 결과입니다.

그리고 수시에 다 떨어진 것에는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— 정시에 아무 제약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수시에 등록했다면 정시가 닫혔을 것입니다. 지금은 모든 문이 열려 있습니다.

이 말이 위로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, **실무적으로도 사실입니다.** 다음 면부터 무엇이 남았고 무엇을 하실지 말씀드리겠습니다.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,482줄을 저희가 집계. 경쟁률은 전년도 값의 중앙값입니다.

02 · 무엇이 다른가

정시는 다른 시험입니다

정시는 수시의 연장이 아닙니다. **재는 것부터 다릅니다.**

	수시	정시
무엇으로	내신 · 서류 · 논술	수능 성적
몇 장	여섯 장	세 장 (가·나·다군 각 하나)
내신	핵심입니다	대개 안 보거나 매우 작습니다
결과를 미리	가늠하기 어렵습니다	훨씬 정확합니다

맨 아랫줄이 정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수시는 서류를 사람이 읽고 논술은 그날 쓴 것을 봅니다 — **미리 알 수 없습니다.** 정시는 이미 나온 점수로 겨룹니다. **내 점수도 알고, 대략의 분포도 알 수 있습니다.**

그래서 정시는 「잘 보는 것」보다 「잘 쓰는 것」의 비중이 큼니다. 같은 점수로 어느 대학에 어느 군으로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.

내신이 안 보인다는 것

수시에서 내신 때문에 좁았던 학생에게 정시는 다른 자입니다. **3년치 기록이 아니라 하루의 점수로 봅니다.** 수시에서 안 되던 자리가 정시에서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.

거꾸로 내신은 좋았는데 수능이 약한 학생에게는 정시가 더 좁습니다. **지금 자기가 어느 쪽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. 그것이 앞으로 두 달을 어떻게 쓸지를 정합니다.**

출처: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각 대학 정시 모집요강. 군별 모집과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다릅니다.

03 · 무엇이 남았나

세 장과 그다음

남은 길은 넷입니다. 순서대로 보십시오.

차례	무엇	언제
1	정시 세 장 — 가·나·다군에 하나씩	12월~1월
2	정시 추가모집 — 미달 자리를 다시 뽑습니다	2월
3	전문대 — 모집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	겨울~봄
4	재수·반수	그다음 해

2번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. 정시에서 정원을 못 채운 자리를 **2월에 다시 뽑습니다.**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있고, 여기서 자리를 찾는 학생이 해마다 있습니다. **정시 세 장이 다 안 됐다고 그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**

3번도 함께 보십시오. 전문대는 수시·정시 지원 횟수 제한과 별개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. 학과에 따라 취업으로 이어지는 길이 뚜렷한 곳이 있습니다. 「일반대가 아니면 안 된다」로 좁히기 전에 한 번은 보실 만합니다.

4번에 대해 — 정하기 전에 세어 보십시오

재수는 수능을 다시 보는 선택입니다. 내신은 바뀌지 않습니다. 그러니 「수시가 안 됐으니 재수」는 논리가 어긋납니다 — 재수해도 수시 조건은 그대로입니다.

재수가 값을 하는 것은 「수능을 더 올릴 수 있다」가 분명할 때입니다. 그러니 물음은 이렇습니다. 「올해 수능이 내 실력이었나, 아니면 아직 안 나온 것인가.」 이 물음에 답하시려면 먼저 정시로 갈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세어 보셔야 합니다. 세어 보기 전에 정하지 마십시오.

출처: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각 대학 모집요강. 추가모집 실시 여부와 규모는 해마다 다릅니다.

04 · 그래서 무엇을

지금 하실 차례와 점검표

12월의 며칠이 그해를 정합니다. 순서를 지키십시오.

차례	무엇을	왜
1	수능 성적표를 정확히 봅니다	등급이 아니라 표준점수·백분위
2	대학별 반영 방법을 견줍니다	같은 점수가 대학마다 달라집니다
3	군을 나눠 세 장을 짭니다	같은 군에 둘은 못 씁니다
4	추가모집까지 염두에 둡니다	2월이 남아 있습니다

2번이 정시에서 가장 큰 이득이 나는 자리입니다. 대학마다 **영역별 반영 비율**이 다르고 **영어 환산표**가 다릅니다. 내 강한 영역을 크게 보는 대학을 찾으면 공부를 더 하지 않고도 환산 점수가 올라갑니다.

그리고 1번을 정확히 하십시오. 정시는 **등급으로 겨루지 않습니다**. **표준점수와 백분위**로 봅니다. 같은 2등급 안에서도 점수 차이가 큼니다. 등급만 보고 판단하시면 자리를 잘못 잡습니다.

지금 하실 여덟 가지

- ☐ 수능 성적표의 **표준점수·백분위** 를 적어 두었는가
- ☐ 내가 **강한 영역** 이 무엇인지 아는가
- ☐ 그 영역을 **크게 보는 대학** 을 찾아보았는가
- ☐ 대학별 **영어 환산표** 를 견줘 보았는가
- ☐ **가·나·다군** 을 나눠 짭는가
- ☐ 세 장이 **같은 총** 에만 몰려 있지 않은가
- ☐ **추가모집** 일정을 알고 있는가
- ☐ 재수를 생각한다면 **정시로 갈 수 있는 곳을 세어 본 뒤** 인가

여덟째를 꼭 지키십시오. **세어 보지 않고 정하는 재수가 가장 위험합니다**. 갈 수 있는 곳을 알고 나서도 재수가 낮다면, 그건 근거 있는 선택입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**이 시기에 급하게 컨설팅을 계약하지 마십시오**. 12월은 가장 비싸고 가장 급해 보이는 때라 **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**. 먼저 **성적표를 놓고 대학별 반영 방법을 견주는** 일을 해 보십시오. 요강에 다 적혀 있고, 하루면 하십시오. **그것을 해 본 뒤에도 남는 질문이 있을 때** 상담을 받으시면 값을 합니다.

05 · 자주 묻는 것

이 시기에 하시는 질문

Q. 재수를 하면 성적이 오르나요?

오르는 학생도 있고 안 오르는 학생도 있습니다. 저희는 「오릅니다」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. 그건 파는 말입니다.

대신 **가능할 수 있는 것**은 있습니다. **올해 수능이 평소 모의고사보다 크게 낮았다면** — 아직 안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. **평소와 비슷하게 나왔다면** — 그것이 지금 실력에 가깝습니다. 올리려면 **지금까지와 다른 방식**이 필요한데, 그게 무엇인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그리고 **1년의 값**을 함께 세십시오. 비용과 시간뿐 아니라, **그해에 얻었을 대학 생활**도 잃는 것입니다. 어느 쪽이 나은지는 집집마다 다릅니다. 다만 **정시로 갈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세어 본 뒤** 정하십시오.

Q.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 줘야 할까요?

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, 가장 조심스럽게 답합니다.

저희가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은 하나입니다. **지금 필요한 것은 평가가 아니라 다음 할 일**입니다.

「왜 안 됐을까」를 이 시점에 되짚는 것은 **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**. 되짚을 시간은 나중에도 있고, 지금은 **정시 세 장을 짜야 하는** 며칠입니다.

「**이제 뭘 하면 되는지 같이 보자**」가 이 시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. 구체적인 다음 일이 있으면 **사람은 대개 움직입니다**.

그리고 **부모가 먼저 무너지지 않는 것**이 실제로 큰 일입니다. 학생은 **결과보다 부모의 표정**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수시가 다 안 됐다는 것은 **정시가 온전히 남아 있다는** 뜻이기도 합니다. **성적표를 펴고 반영 방법부터 견주십시오**. 거기서 남은 길이 보입니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요강과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. 정시 모집 군·반영 방법·추가모집은 대학과 연도마다 다릅니다. 지원 전에는 각 대학 입학처의 최종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.